

# 문자와 영상 이미지가 어우러져야

《세계문화기행》과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종이책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문자와 영상 이미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미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새삼 문자의 가치가 재발견된다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다.

종이책의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로 두 부류다. 한 부류는 책이란 생각만 전해주는 문자 중심의 책이라고만 여겨온 지식인이다. 세상의 흐름을 편하게 좇아 대중에게 전달해줄 뿐 책 만드는 사람의 고투(苦鬪)를 진정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 부류는 정보화사회에서 뉴미디어를 다루는 사람이다. 종이책의 장점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종이책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야만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 문자의 장점 새롭게 부각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정보중심으로만 본다면 책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가령 “26만 개의 광고판이 있고, 1만 7천 종의 신문이 있으며, 1만2천개의 정기간행물이 있으며, 2만 7천개의 비디오 대여점이 있으며, 4억개의 텔레비전이 있으며, 5억개의 라디오가 있고(자동차용을 제외하고), 하루 4만권의 새책이 발간되고, 4천1백만장의 사진이 찍히며, 컴퓨터 덕에 6백억만자의 광고지가 뿌려지는 그런 정보 홍수의 문화”(닐 포스트먼, 《교육의 종말》, 문예출판사) 속에 살고 있는 ‘정보론자’에게 ‘한 권의 책’은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빌렘 플루서는 그의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문예출판사)에서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문자가 과정들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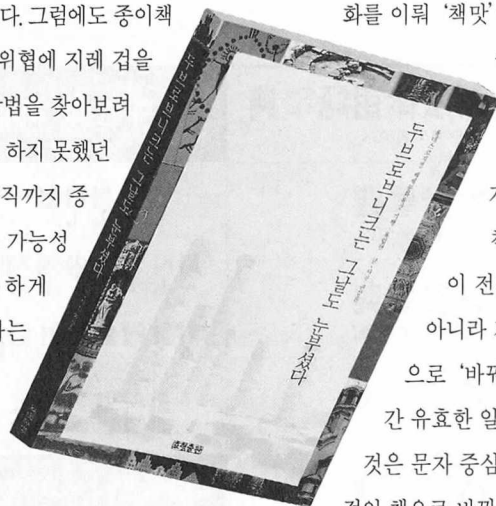
이희수 지음  
《세계문화기행》, 일빛

문자가 역사의식을 생성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 역사의식은 ‘디지털적 코드변환’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혁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자를 중심으로 문자 이전의 그림의 시대인 전(前)역사(선사)시대, 문자의 시대인 역사 시대, 문자 이후 디지털 코드의 시대인 탈(脫)역사(역사 이후)의 세 시대로 구분한다.

그러나 문자의 지배가 끝났다는 탈역사, 즉 포스트역사 시대에 문자의 장점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문자가 영상이미지와 상보(相補)적으로 결합되면서 종이책의 새로운 가능성이 살아난 것이다. 그럼에도 종이책 종말론자들의 위협에 지레 겁을 먹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못했던 출판인들은 아직까지 종이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종이책의

권삼윤 지음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  
효형출판. 문자와 영상 이미지가 조화를 이뤄 ‘책맛’을 더해준다.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문자와 영상이미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책 만들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문자와 이미지는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해왔던 것이어서 구태여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둘을 나누어 문자의 시대는 가고 이미지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에 쉽게 현혹됐다. 이미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문자의 위기가 논의되는 시점에 새삼 문자의 가치가 재발견된다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지만 문자 또한 영상 이미지와 결합하면 그 가치가 커진다는 명제는 오랜 세월 유효했던 것이지 전혀 새롭게 발견된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책이 잘 팔려나가는 행복한 세월을 살아왔다.

## 업그레이드된 책으로 바꿔주기

지난 6월말에 거의 동시에 출간돼 7월 이후 인문 분야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문화기행》(이희수, 일빛)과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권삼윤, 효형출판)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다.

중동 이슬람문화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가진 문화인류학자가 세계 8대 문명 20개 나라의 문화를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세계문화기행》과 18년에 걸쳐 50여 개국의 세계문화 유산을 탐방해온 프리랜서 문명비평가가 유럽 30여 문화유산 기행을 통한 문화 읽기를 보여주는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는 180여 컷의 생생한 컬러사진, 혹은 거의 전 페이지에 등장하는 사진이 가져다주는 문자와 영상이미지가 조화를 이뤄 ‘책맛’을 더해준다. 이런 책들은 책에 수록된 사진 ‘이미지’ 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주지만 문자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의미가 배가된다.

책의 생산이나 서점의 매장공간이 전혀 없던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효용이 업그레이드된 책으로 ‘바꿔주는’ 작업은 앞으로 상당 기간 유효한 일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문자 중심의 책을 문자와 이미지가 상보적인 책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